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치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표지 탐색하기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

1) 책 제목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말도 느릿느릿 행동도 느릿느릿, 느릿느릿 양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늘 빨랑빨랑 양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걸까?'

말도 빨리빨리 행동도 빨리빨리, 빨랑빨랑 양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항상 느릿느릿 양을 기다리기만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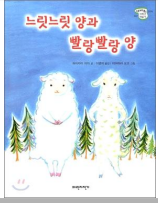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양,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①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의 말과 행동은 각각 어떤가요?

⇨

②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지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빨랑빨랑 양도 이름 그대로 언제나 빨랑빨랑 급했지요.

·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릿느릿 양은 오늘만큼은 늦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습니다.

· 여유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자꾸만 뒤쳐지고 말았어요.

· 빨랑빨랑 양도 친구를 따돌리고 먼저 갈 마음은 없습니다.

· 그런데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느릿느릿 양은 늘 저 멀리서 헐레벌떡 허둥거리지요.

(나) 느릿느릿 양이 만든 수프는 옥수수 수프든 양파 수프든 감자 수프든 한결같이 맛이 좋았습니다. 그 비법이 오랫동안 ㉠()하게 끓이는 데 있다는 걸 빨랑빨랑 양은 알아채지 못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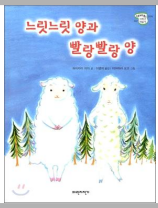
1) (가)의 밑줄 친 낱말(기본형)의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급하다 () · 걸리다 () · 뒤쳐지다 () · 따돌리다 () · 허둥거리다 ()

- ① (시간 따위가) 들다.
- ② 어찌할 줄을 몰라 갈팡질팡하며 다급하게 서두르다.
- ③ 시간의 여유가 없어 일을 서두르거나 다그쳐 매우 빠르다.
- ④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남게 되다.
- ⑤ 뒤쫓는 사람이 따라잡지 못할 만큼 간격을 벌려 앞서 나간다.

2) 다음은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끓이지 않고 꾸준하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지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악어나 파인애플도 막상 그리려고 하면 그 모습이 () 그릴 수가 없었지요.

· 그런데 느릿느릿 양이 그린 나뭇잎 세 장처럼 () 보이지 않았습니다.

· '빨랑빨랑 양이 그린 나뭇잎은 () 생각했는데, 새삼 다시 보니 그렇지 않네. 오히려 좋아 보이는걸.'

· 기분 탓일까요. 층층으로 () 언덕이 하얗게 보였어요.

· 느릿느릿 양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 표정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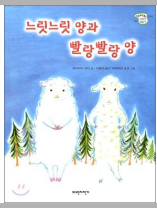
(나) 책꽃이에 꽃혀 있던 지도는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길은 지도에 나온 그대로였지요. 둘이서 언덕을 넘어 지도에 나온 길을 더듬어 갔습니다.

1) 주어진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그럴듯하게 : 제법 그렇다고 여길 만하게.
- 겹쳐진 : 여럿이 서로 덧놓이거나 포개어진.
- 서툴다고 :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고.
- 진지한 :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한.
- 어렵풋해져서 :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해져서.

2) 다음은 국어사전에서 찾은 '바래다'의 뜻입니다.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 바래다01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 바래다02 : 가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배웅하거나 바라보다.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지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국어 문법 실력 쑥쑥 키우기

다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스름한 숲 속에는 굵은 나무들이 뽁뽁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무심코 빨랑빨랑 양의 등에 난 털을 짝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 “아.㉢ 미안.” / ㉣걱정 마. 천천히 걸을게.㉤ / “응.”

그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뭔가가 홀연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흙 빛깔 망토를 걸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니.㉥”

망토를 걸친 남자가 소름이 돋는 음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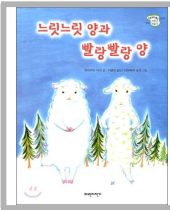
(나) 빨랑빨랑 양은 굵어모은 털을 부지런히 자아서 털실을 만들었어요. 주르륵주르륵, 털실이 기다랗게 뿜혀 나왔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이런 일이 좋았습니다.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도 질리지 않았지요. 느릿느릿 양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저 즐겁게 털실을 짓고 또 ㉦자았습니다.

1) (가)의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문장 부호를 쓰세요. (문장 부호 : . , ? ! “ ”)

㉠		㉡	
㉢		㉣	
㉤		㉥	

2) (나)에서 ㉦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 쓰세요.

⇒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치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일 년에 한 번씩 가는 그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언덕을 넘고 또 넘어서 한나절쯤 걸어가면 있는 마을이지요.

느릿느릿 양은 빨랑빨랑 양의 걸음이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자꾸만 뒤처지고 말았어요.

빨랑빨랑 양도 친구를 따돌리고 먼저 갈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느릿느릿 양은 늘 저 멀리서 헐레벌떡 허둥거렸지요.

느릿느릿 양은 이따금 어깨에 멘 가방을 열고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눈에 대면 빨랑빨랑 양이 잘 보였습니다. 걸어갈 때도 있고, 길가에 앉아 느릿느릿 양이 따라오길 기다릴 때도 있었지요. 털퍼덕 주저앉아 초콜릿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빨랑빨랑 양의 모습이 보이면 느릿느릿 양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자기가 늘 빨랑빨랑 양을 먼 곳에서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 무렵 빨랑빨랑 양도 바람 속에 우뚝 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항상 느릿느릿 양을 기다리기만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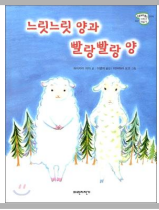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이 쌍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1) 윗글에서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쓰세요.

느릿느릿 양	
빨랑빨랑 양	

2) ‘느릿느릿 양’이 ‘빨랑빨랑 양’을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지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빨랑빨랑 양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옆집에 사는 느릿느릿 양을 찾아갔습니다.

느릿느릿 양의 집에서는 맛있는 수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옥수수 수프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프. 킁킁.”

빨랑빨랑 양은 자기도 모르게 킁킁대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쉴쉴 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침 잘 왔어. 옥수수 수프 만드는 중이야.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네. 괜찮으면 너도 먹어 봐.”

느릿느릿 양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어찌나 느릿느릿 말하는지 아직 잠이 덜 깬 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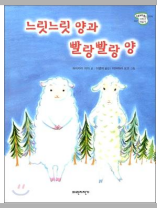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이 원하는 대로 점심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느릿느릿 양이 만든 수프는 옥수수 수프든 양파 수프든 감자 수프든 한결같이 맛이 좋았습니다. 그 비법이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이는 데 있다는 걸 빨랑빨랑 양은 알아채지 못했지요. 언제나 급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두르니까요.

1) 윗글에서 ‘빨랑빨랑 양’은 옥수수 수프를 먹어보라는 ‘느릿느릿 양’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쓰세요.

⇒

2) ‘느릿느릿 양’이 만든 모든 수프가 한결같이 맛이 좋은 비법은 무엇인지 쓰세요.

⇒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치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래, 숲을 그려 보자.” / 얼마 전에 옆집에 사는 빨랑빨랑 양과 놀러 갔던 숲입니다. 느릿느릿 양의 머릿속에 즐거웠던 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하얀 도화지 위에 초록색 물감으로 나뭇잎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나뭇잎을 또 한 장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잎 더.

느릿느릿 양은 방금 그린 나뭇잎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았어요. 썩 잘 그린 것 같았습니다.

(나) 그림을 보고 있으니 빨랑빨랑 양도 나뭇잎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탁자 위에는 연필과 펜이 텅굴고 있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초록색 펜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도화지 위에 나뭇잎을 쑥쑥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를 그리고 멀찍이서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느릿느릿 양이 그린 나뭇잎 세 장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이미 그린 것은 지울 수가 없지요. / “이를 어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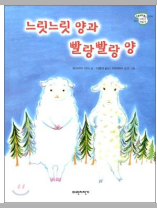
당황한 빨랑빨랑 양은 두 장, 세 장, 네 장 계속해서 나뭇잎을 그려 넣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나뭇잎이 점점 더 늘어났지요. 아무리 그러도 느릿느릿 양이 처음에 그린 나뭇잎 세 장만큼 잘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1) (가)에서 ‘느릿느릿 양’이 숲을 그리기로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

2) (나)에서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이 그린 그림에 멋대로 손을 댔다가 그림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써 보세요.

⇒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지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잡아먹히고 싶지 않아요!”

느릿느릿 양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늘 꾸물거리고 자기 생각은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맘 먹고 딱 잘라 말했지요.

흐음,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신음 소리를 흘렸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지요.

“정말로 잡아먹히고 싶지 않아요.” / “왜?” / “우리는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군.” / “네, 곤란해요.” / “곤란하긴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저녁 메뉴는 양 요리라고 왕에게 벌써 보고했어.” / “그럼 곤란하겠네요.” / “아하, 이거 참 큰일이군.” / “어느 쪽이 더 곤란할까요?” / “구태여 따지자면 너희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우릴 놓아주세요.” / “알았다. 그렇게 하지.” /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두 양을 다시 성 뒷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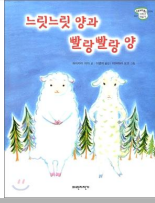
1) 윗글에 나타난 ‘느릿느릿 양’의 변화한 모습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늘 꾸물거리고 자기 생각은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음.



2) 윗글에서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써 보세요.

⇒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치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창의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다음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의 한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 같은지 써 보세요.

⇒

2)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이 왼쪽 그림을 보고, 무엇 같다고 하였는지 쓰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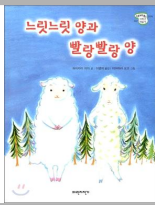
3) 왼쪽 그림의 하얀 물결은 사실 수많은 양이었어요. 양 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였을지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저기 좀 봐. 저쪽이 왠지 하얗게 보이지?” / “정말 그러네. 뭘까? 눈인가?”

“이런 계절에 무슨 눈이야.”

“그럼 구름인가?” / “모르긴 해도 구름은 저렇게 낮게 깔리진 않아.”

한참이 지나자 하얀 부분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넓게 퍼졌습니다. 언덕에서 언덕으로 서서히 퍼져 나갔지요.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 (초등 2단계)

파란자전거 | 하치카이 미미 글 / 미야하라 요코 그림 / 이영미 옮김



정답과 해설

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p>1)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이 서로 달라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다.</p> <p>2) 앞표지의 왼쪽에는 뚱뚱한 양이 두 손을 잡고 다리를 모으며 서 있고, 오른쪽에는 마른 양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벌리고 서 있다.</p> <p>3) ① 느릿느릿 양은 말도 느릿느릿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빨랑빨랑 양은 말도 빨리빨리 행동도 빨리빨리한다.</p> <p>② (예시 답안) 느릿느릿 양은 말과 행동을 조금 빨리하고, 빨랑빨랑 양은 말과 행동을 조금 느리게 하면 둘은 속도가 맞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p>
2쪽	<p>1) ③, ①, ④, ⑤, ② 2) 몽근</p>
3쪽	<p>1) 어렵풋해져서, 그럴듯하게, 서툴다고, 겹쳐진, 진지한 2) ㉞</p>
4쪽	<p>1) ㉠ : ,(마침표) ㉡ : !(느낌표) ㉢ : ,(쉼표) ㉣ : "(큰따옴표 시작) ㉤ : "(큰따옴표 끝) ㉥ :?(물음표)</p> <p>2) 주르륵주르륵, 털실이 기다랗게 뽀뽀 나왔습니다.</p>
5쪽	<p>1) 느릿느릿 양 : 자기가 늘 빨랑빨랑 양을 먼 곳에서만 바라본다는 생각 빨랑빨랑 양 : 자기는 왜 항상 느릿느릿 양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p> <p>2) 쌍안경</p>
6쪽	<p>1) 너무 느릿느릿 말해서 아직 잠이 덜 깰까 하는 생각</p> <p>2) 수프를 오랫동안 몽근하게 끓이는 것</p>
7쪽	<p>1) 얼마 전에 빨랑빨랑 양과 숲에 놀러갔던 즐거웠던 날의 기억이 떠올라서</p> <p>2) (예시 답안) 친구가 슈퍼맨이 그려진 퍼즐 500 피스를 맞추고 있는데, 내가 도와준 다며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망치고 말았다.</p>
8쪽	<p>1)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며 큰맘 먹고 딱 잘라 말함</p> <p>2) (예시 답안) 나와 단짝인 친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동네 형이 축구공을 주지 않아서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친구가 동네 형에게 축구공을 달라고 딱 잘라 말했다.</p>
9쪽	<p>1) (예시 답안) 바다에 하얀 파도가 여기저기에서 몰려오는 것 같다. / 하늘에 크고 작은 하얀 뭉게구름이 여러 곳에 떠 있는 것 같다.</p> <p>2) 눈, 구름 3) 생략</p>